# **Eugene's FICC Update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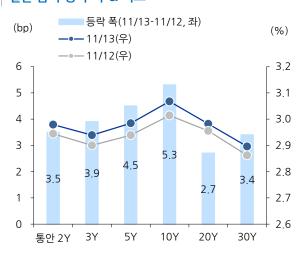




Fixed Income 김지나 02)368-6149 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 02)368-6176 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 02)368-6177 dbwogur170@ eugenefn.com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						
		11/13일	1D	1W	YTD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39%	3.9	-2.1	-21.5	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67%	5.3	-6.7	-11.6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2.8	11.4	17.4	2.9	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82	-12.0	7.0	40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6.51	-41.0	73.0	101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87%	-5.5	10.7	3.7	
	미국채 10년물	4.452%	2.4	18.0	57.2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16.5	8.6	9.1	-37.1	
	독일국채 10년물	2.389%	2.7	-1.5	38.5	
	호주국채 10년물	4.668%	10.5	4.1	71.3	

#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##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#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베어스티프닝 마감. 대외금리, 수급 연동
- 트럼프 트레이드 여파로 장기물 중심 약세 출발. 개장 전 발표된 취업자 증가폭이 4개월만에 10만명을 하회 했던만큼 장 중 금리 상단은 제한됨
- 다만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 돌파하며 개장 후 이틀 연속 1,400원대 종가 기록, 금리 부담 가중. 장 후반 외국 인은 국채선물 매도세를 확대하여 약세 심화

####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#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. 주요 물가, 레드스윕 소화
- 예상에 부합한 미 10월 CP로 연준 12월 인하 기대 강화, 단기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. 다만 레드스윕이 현실화된만큼 향후 정책 불확실성 반영하며 장기금리 반등
- 세인트루이스 및 댈러스 연은 총재, 신중하고 완만한 인하경로를 지지. 카시카리 총재, 물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였으나 추가 데이터 확인이 필요함을 언급
- 급일 미국 10월 PPI, 유로존 3Q GDP, 유로존 3Q 고용, 한국 9월 M2 등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

FX & Commodity (단위: %						
		11/13일	1D	1W	YTD	
흰율	원/달러	1,406.60	0.2%	0.7%	9.2%	
	달러지수	106.51	0.5%	1.3%	5.1%	
	달러/유로	1.056	-0.6%	-1.6%	-4.4%	
	위안/달러(역외)	7.24	0.0%	0.6%	1.7%	
	엔/달러	155.59	0.7%	0.7%	10.5%	
	달러/파운드	1,270	-0.3%	-1.4%	-0.2%	
	헤알/달러	5.81	0.9%	2.4%	19.8%	
상품	WTI 근월물(\$)	68.43	0.5%	-4.5%	-4.5%	
	금 현물(\$)	2,573.81	-1.0%	-3.3%	24.8%	
	구리 3개월물(\$)	9,047.00	-1.0%	-3.2%	5.7%	

#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####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# 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3.10원 상승한 1,406.60원에 마감. 연고점 경신.
- 간밤 트럼프 트레이드 확산으로 달러가 질주를 지속. 달러-원은 NDF 환율 상승 반영해 1,410.00원에 개장.
- 개강 직후 1,410원을 잠깐 상회했으나, 이내 상승폭을 축소. 레벨 부담에 따른 네고물량과 당국 개입 경계감도 작용. 오후 들어 국내 증시 낙폭이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며 마감.

####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#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레드 스윕 속 상승세 지속.
- 10월 CPI 및 Core CPI는 각각 +2.6%(Y), +3.3%(Y) 상승해 시장 예상에 부합. 기존 둔화 추세를 이어갔으나 올해 여름 보다는 더딘 진전을 보였음.
- CP 발표 직후 달러와 금리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, 이내 반등. 공화당이 하원마저 과반에 성공하면서 레드 스윕이 달성되었고 달러 강세가 계속됨.
- 반면 유로-달러는 독일의 경제/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 서 1.056선까지 밀려남. 트럼프 트레이드가 잦아들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달러 강세를 저지할 요인이 마땅치 않음.
- 금일 미국 PPI 발표 예정.